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 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내 자성불 있는데 밖에서 찾습니까

“이 세상 모든 번뇌 망상은 자기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니 자기 없애는 공부를 해야죠”

오늘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토도량도 물론 한도량이지 각각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한도량이 있길래 각각의 처소가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함이 없이 말을 하는 것이 그대로가 정말 법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꼭 알고 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불교라고 하면 보통 머리끝은 사람만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불(佛)이란 일체 만물만생의 생명이고, 교(敎)는 일체 만물만생이 살아나가는 생활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불교는 한국에 국한된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 그 자체요. 그리고 우리가 첫째 알아둬야 할 것은 내 몸이 주머니자 바로 자기의 집이라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공기 주머니 즉 자기가 바로 공기주머니입니다. 우리는 한 주머니 속에 있으면서 서로 싸우고 쫓고 울고 다투고 합니다. 만약에 지구라는 공기 주머니가 버스라면 우리는 한 버스에 탄 승객이나 마한가집니다. 그런데 한 버스에 탔으면서도 이견 내 결상이고 저견 내 결상이다. 이견 내 종교고 저견 내 종교다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법이 지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버스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다룰 수도 없고, 실사 없이 끊임없이 돌아가는 그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내다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안에서 제일이라고, 내가 제일이라고 우기고 사는 겁니다. 내가 제일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평등한 공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평등하 니라.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그릇이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다 똑같으니라. 우리가 이 한 바다에서 모든 마음을 다 모아서 자기 일체처에 다 죽 내면 일체처에 다 놓으면 그것이 모이고 모여서 바다가 이루어진다. 그러

면 모아진 바다의 물이 수증기로 올라가서 다시 비로 내린다. 여러분들이 알아들 게 쉽게 하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 요만한 풀 하나도 어김없이 물을 먹죠. 잡초든 꽃이든 큰 나무든 작은 나무든 빠짐없이 다 먹고 삽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왜 평등하다고 하셨나. 그러면 작은 풀은 자기가 작기 때문에 작은 대로 먹었죠. 어떡합니까? 큰 것은 또 큰 대로 먹죠.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큰그릇 이다 작은 그릇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 겠죠. 그러나 우리가 모습은 다를지언정 생명은 다 같습니다. 공생(共生)입니다. 공생(共生)이며 공심(共心)이며 공체(共 體)이며 공용(共用)이며 공식(共食)입니다. 그래서 안이비설신의도 그냥 공법으로 뛰어넘는 법입니다. 원식이라고도 하지 만 공식입니다. 사선도 공법으로 뛰어넘 고 심이인연 연기법도 공법으로 뛰어넘 습니다. 마음은 체가 없는 겁니다. 체가 없기 때문에 한계한 한계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삼천년 전으로 뛰어오 볼 수 있는 겁니다. 삼천년 후로 뛰어오 뛰 는 거고 일초전으로 뛰어오 뛰는 거죠. 자유스럽게 마음을 쓰라고 했는데 여 러분들이 마음을 자유스럽게 쓰지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 마음을 자유스럽게 쓸 수만 있다면 하는 일마다 걸리고 보는 것마다 걸리고 듣는 것마다 걸려서 애를 태우고 살 필 요가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걸 릴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대사의 인연을 빼 한 무더기만 가르치 셧니다. 그렇게 가르치실 뜻이 뭘겠습 니까.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되고 형성되 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형제가 되 고 이렇게 진화해가면서 인간까지 왔다 이겁니다. 그것을 모두 안다면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고 내 자 식 아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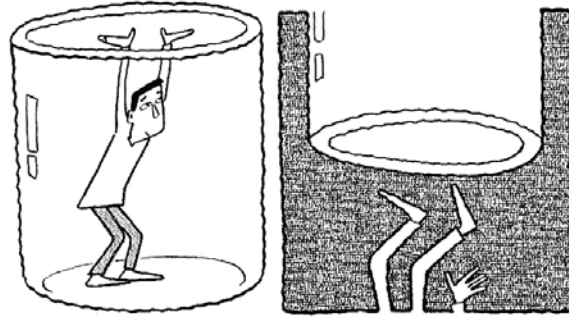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과거의 업 나오는대로 되놓아야 녹아요 평등한 세상에서 내가 제일일수 있나요

축생 아수라 이것도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한생각이면 아수라가 점잖은 부처로 화할 수도 있고 또 점잖은 사람이 아수라로 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마음에 달린 거 지 그것을 어떻게 저렇다 하고 규명을 지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부처님 법입니다. 부처님이 나 오시기 이전에도 진리는 있었습디다. 그러나 부처님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방편으로 나오셔서 우리들한테 그렇게 일 러주셨는데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항상 업매여서 자기 통안에서 나오질 못해요. 자기 통안을 병 속이라고 해도 됩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죠. 새를 병 속 에다 넣고 길렀는데 새는 점점 커지고 병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새가 병 속을 빠져나오게 할 수 있 겠느냐 하고 물은 적도 있었습디다. 우리 사는 것이 병 속과 같은 겁니다. 마음이

넓어지고 지혜로와지면 누가 꺼내주기 이전에 스스로서 나고 들고 하는데 자유 스텝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병에 서 새를 꺼내려고 하니 꺼내집니까 그 게? 즉 말하자면 내 자성불이 있는데 밖 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되느냐 이 소리지.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일대사의 인연을 지으셨다고 했 는데 그 과정을 일일이 거쳐서 한 것이 아니라 한생각에 그 과정을 다 거치신 겁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신 겁니다. 이 미 그렇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보십시오. 부처 님 법이 어떤 것인가. 부처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사는 현실의 법이 바로 부처님 법이다 하는 걸 아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수에는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습니다.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입력이 되

는 겁니다. 입력이 된대로 현실에 나오는 거죠. 그런 것을 어디다 하소연을 하고 남의 원망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의 것이 나오는 대로 거기다 새로운 입력을 되집어 넣으 라는 거죠. 거기다 되놓으면 앞서의 입력이 없어지면서 새로 입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이 풀려나오겠 죠. 녹음테이프처럼 말이예요. 이 세상에 번뇌나 망상이나 모든 걸 끊으려고 하면 끊어집니까 그게. 녹여야죠. 그리고 대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에 그러죠. 억울한 일이 생겼다 또 무슨 일이 생겼다. 아프다. 자식이 나가지 안들어온 다 등 뭐 별의별 문제들이 다 일어나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없다면 일어날 리가 없 죠. 자기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자기가 이 세상에 생겼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자기가 있기에 상대도 생기고 세 상도 벌어졌죠. 그러니 자기 없애는 공부 를 해야죠. 자기가 공한 줄을 아는 것. 그리고 자기가 공했다는 것을 알고 실천 하는 것이 중요하죠.

세요. 얼마나 처참하게 사는지. 사람한테 생명을 다 바치면서도 자기가 벗어날 수 없는 그 사실을 말이예요. 모두가 이 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좀더 이 공 부를 해서 벗어나게 되면 길바닥에 오고 가면서 축생도 견지고 사람도 견질 수 있게 되죠. 꼭 손에 땀 집어줘야만 부시 가 아니거든요. 무주상보시로 함이 없이 하는 보시. 이것이 더 가깝하고 좋은 거 니까요. 이 함이 없이 하는 보시는 실천 에 있어서도 그냥 요만한 거 하나 예누 리가 없이 실천을 할 수 있는 거죠. 물질 로 주고 받는 것은 잠시잠깐 뿐이지만은 그래도 그 마음을 감사하게 받고 혹은 내가 했다는 상이 있는 보시라도 그것을 무보시로 돌려서 받고 감사하게 생각하 고, 또 감사한 뜻으로 되돌려주고 이렇다 면 그게 얼마나 큰 공덕이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양무제가 달마 대사한테 법어를 “나는 이렇게 많은 절을 짓고 스님네들한테 공양을 해드리고 웃을 해드리는 데 얼마나 공덕이 됩니까” 하고 물었죠. 그런데 달마대사는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도 없다고 그랬으면 너무 많아서 하나도 없다는 소리라라도 들었으면 좋았을걸. 그렇게 못듣구선 결국은 달마대사를 그렇게 했죠. 달마대사 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해서 깨우 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못하 게끔 길을 막아놓은거나 마찬가지기 때 문에 달마대사는 ‘길을 막아도 내게는 막은 사이가 없다’ 하고 신 한쪽은 땅에 두고 신 한쪽은 주장자였다 매달아서 모 든 사람한테 보였다고 이겁니다. 이 도리 를 알아야 하고 말이예요.

여러분이 어찌 일을 아시고 한달전 일 을 아시고 일년 전 일을 아시고 내가 뭐 를 했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그러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정수가 컴퓨터와 같아 서 거기에 입력이 들어갔다는 증거입니 다. 그러니까 유전성, 영계성, 세균성, 업 보성, 인과성 이거를 모조리 말하게 할려 면 컴퓨터에 새로운 걸 입력하는 수밖에 는 없는겁니다. 내게 어려운 일이 닥치거 든 주인공에다 동방 놓고는 그냥 시치미 킁 때요. 코웃음 치라고요. 시치미 킁 때 고 거기다 놓고는 ‘너 알아서 해. 네가 형성시켜 놓은 내 모습이니가 내가 알아 서 해.’ 하고는 딱 말기고 지켜보는 거 죠. 꼭 그래야만 돼요. 업매이면 어떻게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중년·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년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창작시대 전화 325-5355 팩스 325-5385

히말라야 ‘山中問答’ 生과 死를 논하다!

부자간의 대화를 통한 동서양의 만남!

현대 철학자 5인 중의 한 명인 아버지와 생물학자이자 티베트 승려인 아들이 세계와 인류, 삶의 의미에 관한 열흘간의 지적 성찰을 통해 우리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다.

이 책은 순전히 우연한 기회에, 아니 굳이 말하자면 인류 역사상 이런 책이 출간된 전례가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 나오게 되었다

—프랑스 ‘날’ 편집부—



뉴욕타임스, 더타임스, 르몽드 등 이 책에 쏟아진 세계언론들의 찬사!

지자인 두 사람도 이 책의 성공에 깜짝 놀랐다. 철학이 소르본 대학의 강의실이 아닌 공학의 대강실에서도 쉽게 읽히게 되었다 —더타임스

이 책에 수록된 대화는 논쟁하게 느껴진다. 그것은 대화를 나누는 주인공이 보여주는 진지함과 지적 깊이 때문이다 —뉴욕타임스

풍부하고 깊이 있는 지적 대화를 이루어진 이 책은 커다란 대중적 성공을 거두고 있다 —르몽드 철학자인 아버지와 승려인 아들이 만났다. 두 사람은 ‘승려와 철학자’라는 부자간의 대화록을 출간, 프랑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조선일보

이들의 대화가 더욱 가치 있는 점은 둘 다 최고 수준의 서양 과학명문을 공부한 학자라는 점 이들의 대화는 불교뿐만 아니라 철학, 정치학, 윤리학, 심리학 등 인류 정신사에 대한 광범위한 지적 탐구로 이어진다 —동아일보

이 책은 현대인의 삶과 사치를 되돌아보고, 그 병의 대안을 생각하는 데도 유쾌한 계기를 마련한다. 깊이 있는 지적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어렵지 않게 읽힌다. —문화일보

프랑스 베스트셀러 1위 · 교보문고 인문 베스트셀러 1위

승려와 철학자

정·프랑스어 2면 미티유 리키르 지음/이영진 옮김/양장본 값 12,000원

◆ 우리는 이 책을 읽고 꼭 행복해져야 합니다!

초베스트셀러가 된 책,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침내 미국, 일본에 이어 한국에서도 이책의 가치가 증명되고 있습니다!

전미 베스트 1위, 일년 만에 600만부 돌파!

일본 베스트 1위, 6개월 만에 200만부 돌파!

한국서점연합회 비소설 베스트셀러 1위!



왜, 맨날 이 모양이지?

허구한날 꾸밈한 말, 아무것도 답답하지 않은 인생을 위하여 비비 꼬인 인생의 매듭을 확실하게 풀어줍니다. 아주 쉽고 편안한 실천 방법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리처드 김슨 지음 정영문 옮김/값 7,500원